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명문 특성화고 조성

장수군 장계면에 위치한 장계고등학교가 올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삼고 시설분야 15억, 교육분야 4억여원의 투자로 전북유니텍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며 명실상부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했다.
이에 본보는 김준배 교장을 만나 포부를 들어본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준배 전북유니텍고 교장(가운데).

새롭게 바뀐 학교명은 무슨 뜻인지요? 학교명을 변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9학년도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의 학과개편 부문에 신청해 학과개편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교는 자동차기계과 단과의 학교였으나, 학과개편으로 자동차기계과와 조리제빵과 두 개의 학과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의 유니텍이란 말은 Universal(만능인, 박식한), Unique(유일한), United(통합된)의 의미를 갖는 'Uni'와 technology(기술)의 'tech'가 만난 합성어다. 즉, 자동차(공업계)와 조리제빵(가사계) 전혀 다른 두 분야의 통합된 기술, 만능이며 유일한 기술을 가르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과가 생겼는데, 학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전북유니텍고의 학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구조화됐습니다.
첫째,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중에 하나인 지능형 인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역군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자동차기계과 유지 및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산업과 6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역의 특산품을 새로운 미래가치로 재생산하고, 전북 지역 및 장수군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조리제빵과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가사계열인 조리제빵과를 신설해 명문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기계 도장 실습



조리제빵과 1학년 학생들



정규교육과정



학교에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게 있을까요?

-전북유니텍고등학교는 '좋은 부모, 주체적 기술인을 길러내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먼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인성, 건강, 직업기초능력(기초학력), 인문역량을 함양해 좋은 부모의 토대를 일궈줍니다. 그 기반 위에 전문기술을 배워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의 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 SW(소프트웨어) 교육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외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체적 기술인으로서 전인적 완성을 도우려 합니다.

그런 철학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전북유니텍고의 하루는 3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파트(08:30~16:20)는 정규교육과정입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습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 위주의 수업 진행으로 지식습득과 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을 모두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16:30~18:30)는 꿈과 끼를 위한 시간입니다. 자율, 전공, 인문 동아리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그룹사운드, 3D프린팅, 드론, 베이킹, 역사문화기행, 독서모임, 미술 등 다양한 동아리 운영으로 인문역량 및 꿈과 끼,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19:00~21:00)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6개의 방과후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입반, 공무원반, 영어회화반, 자격증반(3개) 등 정규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심화된 내용을 방과후학교 시간을 이용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취업과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 대입, 취업, 기능영재 등 4가지의 맞춤형 진로지도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1과정 필수 선택제를 운영해 소외 없는 진로지도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시기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2학년 시기에는 역량 함양을, 3학년 시기에는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년별, 단계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졸업생 실적은 진학을 40%, 취업을 40%, 기타 20%입니다.



동아리 활동

과거에 비해 현재까지 이뤄진 성과나 진행형 상황도 알 수 있을까요?

-전북유니텍고등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혼신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설사업입니다. 20억 원을 투입해 본관동 리모델링, 실습장 환경개선, 조리제빵과 실습장 조성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을 유치 및 확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업 유치입니다.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과장평가형 자격검정 운영 지원사업 등 4.3억 원을 지원받아 예산적 제한에서 탈피해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혁신입니다. 교명 변경과 더불어 기능성, 세련미를 모두 만족하는 교복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가 나아갈 방향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전북유니텍고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을 구성원 전체가 교사와 교육의 장이 되는 모습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수군과의 업무협약(MOU) 추진입니다. 장수군 기술직 공무원(지방직) 채용시 기술계고 특채를 지역인 재전형으로 선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 채용과 교육사업 확대, 농업기술센터 기술 교류, 6차산업 협력, 취업 정보 공유의 내용을 담은 MOU를 장수군과 추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비리스타 실습장을 신속하고 이를 활용한 북카페 공간 등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주민과 학생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의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생활용접반과 같은 평생교육 강좌의 내실화 뿐만 아니라 조리제빵 분야(쿠기, 베이킹클래스)를 개설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중요한 미래의 땅 장수, 548장수를 위해 지역 특산품(레드푸드)를 활용한 지역 시그니처 푸드를 개발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자동차기계과 · 조리제빵과 운영
동부권 명문 특성화고로 자리매김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른 인성
직업능력 · 인문역량 함양 추구

장수군과 협약 추진 · 548장수 위해
지역 시그니처 푸드 개발 학교기업 운영



시제동행 산행활동



인문역량 함양 체험

록 학생들의 재능을 이끌어낼 것이며, 농공단지 기업과 취업연계를 통해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넷째, 소방안전타운이 완공되면 소방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생 진로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각화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여학생 기숙사 및 교직원 관사를 신속히 여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교내 교직원 관사를 신속히 교사들의 역할이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북유니텍고등학교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지향적인 학교경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 되어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준비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평생 성장하는 학생, 비전을 갖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 건강과 인품 및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인 학생상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탄력적이면서도 내실화된 교육과정을 새롭게 조직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성 기자